



우려대로였다. 12일 새 시즌의 막을 올린 남자프로농구는 최근 터진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의 여파로 관중이 크게 줄었다. SK-모비스전이 열린 13일 잠실학생체육관의 스탠드가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럽다. 질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우려대로...썰렁한 관중석

개막 5경기중 관중수 늘어난 곳은 전자랜드경기 뿐
동부 10주년 기념행사도 무색...불법도박 상처 실감

동부는 1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벌어진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오리온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창단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동부그룹은 2005년 TG삼보를 인수해 지난 10년간 농구단을 운영해왔다.

동부는 경기장 메인 출입구에 10주년 특별 기념관을 설치해 그동안의 구단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단 애장품 경매를 실시하는 등 각종 행사를 펼쳤다. 경기 시작에 앞서서는 10주년 기념 엠블럼을 공개하고, 기념 영상을 틀어 10년 동안의 회로애락을 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프타임에는 인기 걸그룹 '시크릿' 초청 공연도 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은 3773명. 좌석 중간 중간 빈자리가 보였다. 지난 시즌 동부의 홈 개막전 관중수(4644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동부 구단이 10주년 기념 및 시즌 개막 행사 등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개막을 앞두고 터진 각종 악재가 팬을 떠나게 한 데 실패했다.

12일 열린 시즌 개막전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5개 구장에서 열린 경기의 총 관중수는 2만2635명. 2014~2015시즌 개막전 5경기 총 관중수(2만5081명)보다 9.8% 줄었다. 시즌 개막이 1개월 앞당겨진 탓도 있지만, 개막 직전 터진 전·현직 프로농구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듯했다. 12일 5경기 전 시즌에 비해 개막전 관중이 늘어난 곳은 인천(전자랜드)뿐이었다. 전자랜드-kt전에는 7194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지난 시즌 5585명보다 29% 증가했다. 원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페네타, US오픈테니스서 첫 메이저 우승 후 은퇴 선언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플라비아 페네타(33·이탈리아·26위)가 곧바로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 페네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테니스대회 13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로베르타 빈치(32·이탈리아·43위)를 2-0(7-6 6-2)으로 꺾고 우승한 뒤 우승 소감을 밝히며 은퇴를 선언했다. 메이저대회 49번 출전 끝에 US오픈에서 우승을 맛보며 1968년 이후 최고령 우승자가 된 페네타는 15년간의 프로 생활을 정리하면서 "언제나 이 같은(우승한 뒤 은퇴하는) 방식을 꿈꿔왔다. 이 방법이 테니스와 작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득점 만큼 빛난 문태종의 수비 투혼

스타 플러스

개막전 더블더블 이어 동부전 22점·4R
김주성·로드 밴스 상대로 몸싸움도 불사
장재석·이승현 공백 메우고 2연승 견인



오리온스는 '2015~2016 KCC 프로농구'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 시즌에 비해 더 강력해진 포워드 라인 덕분이다. 문태종(40·199cm)이라는 걸출한 장신 슈터가 가세했다. 또 득점력이 좋은 애런 헤인즈(201cm)를 영입해 공격력이 강화됐다. 그러나 개막을 앞두고 약재가 터졌다. 센터와 파워포워드를 겸하는 장재석(204cm)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기한부 출전 보류'의 징계를 받았다. 이승현(197cm)마저 대표팀에 합류해 1라운드를 뛸 수 없어 오리온스는 높이의 열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문태종이 장재석과 이승현의 공백을 최소화해준 덕분에 개막 2연승을 달리며 1위로 부상할 수 있었다.

문태종은 12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KGC와의 홈 개막전에서 34분54초를 뛰면서 더블-더블(10점·11리바운드)로 팀의 86-76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득점에선 기대에 못 미쳤지만 골밑 수비에 적극성을 보였고, 리바운드는 팀 내서 가장 많이 잡았다. 1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벌어진 동부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문태종은 출전 시간이 25분20초로 전날보다는 적었지만, 22점·4리바운드로 팀의 100-88 승리에 앞장섰다.

헤인즈와 호흡을 맞춘 공격이 특히 좋았다. 둘은 승부처에서 절묘한 호흡으로 여러 차례 득점을 합작했다. 수비에선 동부 김주성과 로드 밴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몸싸움을 하며 높이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애썼다.

오리온스 추임승 감독은 동부전을 마친 뒤 "나이 든 선수가 수비에 적극성을 보이게 쉽지 않는데 (문태종이) 주된 한 몫 이상을 해줬다.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오늘 공격과 리바운드에서 중요한 순간 앞도랑같은 플레이를 해줬다.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라 헤인즈와의 호흡도 좋다"고 덧붙였다.

문태종은 "장재석과 이승현이 없어 신장이 작은 팀이 됐다. 이 때문에 포스트에서 많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팀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비 시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 컨디션



오리온스 문태종(왼쪽)이 1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동부전 도중 상대 수비를 따돌리며 공격하고 있다. 그는 적극적 포스트 수비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사진제공 | KBL

이 좋다"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가 떨어져 외곽에서 빠른 선수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포스트에서 수비하는 게 편한 측면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많이 생각하고 코트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문태종은 KBL에서 활약한 이후 가는 팀마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정작 챔피언 반

지는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KBL에서 개인이나 팀 성적 모두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오리온스로 이적해서도 팀이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꼭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양궁월드컵 리커브 종합우승...한국양궁, 2진도 강했다

1·2진 실력차 적어 선발전 치열할 듯

태극 남녀공사들은 2진도 강했다. 국가대표 2진을 파견한 한국양궁(총감독 문형철)이 13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끝난 2015 세계양궁협회(WA)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리커브 부문 종합우승(금3·은3개)을 차지했다. 이동현(정주시청)·이우석(인천체고)·신재훈(상무)이 짝을 이룬 남자 리커브 대

표팀은 미국과의 단체전(70m·6발 4세트제) 결승에서 세트승점 6-0으로 이겼다. 앞서 이동현은 남자 개인전에서 썬유(중국)에게 4-6으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이특영(광주광역시청)과 함께 한 혼성전 결승에선 중국팀을 세트승점 5-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개인전에선 홍수남(정주시청)이 이특영을 6-2로 따돌리고 정상에 섰고, 이특영·홍수남·전성은(LH)이 나선 여자부 단체전 결승

에선 대만에 3-5로 졌다. 국제무대에서 다시금 실력을 확인한 국가대표 2진의 일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프레올림픽 참가차 브라질로 이동한다. 올림픽 테스트이벤트인 이번 대회는 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정주시청)·구본찬(안동대)·기보배(광주광역시청)·최미선(광주여대)·강재영(경희대) 등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1진이

나서지만 대한양궁협회(회장 정의선)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분위기를 사전에 느껴보고 현장 감각을 쌓을 수 있도록 2진도 동행시킨다.

특히 한국양궁은 1·2진의 실력차가 거의 없어 올림픽 본선에 누가 나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콜롬비아~브라질로 이어지는 여정은 의미가 크다. 올림픽대표팀 최종 명단은 현 국가대표 1·2진(8명)이 참가하는 올해 11월 2차 선발전을 통해 예비대표 8명을 뽑은 뒤 내년 3월 2016년도 최종 선발전을 통해 확정된다. 국가대표 1진은 이미 리우 데자네이루에 도착해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메이웨더, 판정승...무패복서로 은퇴

베르토 상대 수비 위주 경기로 판정승
통산 49전49승...마르시야노와 타이

'세기의 대결'에서 '세기의 졸전'을 선물했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미국)가 실망스런 경기 끝에 은퇴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매니 파퀴아오(필리핀)와의 재대결 대신 손쉬운 은퇴경기를 택한 메이웨더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세계복싱협회(WBA) 웰터급(66.7kg) 통합타이틀전에서 안드레 베르토(32·미국)를 상대로 3-0(117-111 118-110 120-108)의 심판전 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이로써 메이웨더는 프로통산 49전49승(26KO)의 대기록을 세우고 글러브를 벗게

됐다. 무패복서의 전설인 로키 마르시야노와 타이 기록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실베스터 스탈론이 주연한 영화 '로키'의 모델인 마르시야노는 더 이상 싸움 상대가 없어 32세에 은퇴했고, 45세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헤비급 타이틀매치에서 6차 방어까지 성공한 마르시야노는 1947년부터 1955년까지 무패의 기록을 세웠다.

'프리티 보이'라는 별명처럼 역사상 최고의 수비전문선수 메이웨더는 이번에도 맞지 않고 싸우는 복싱을 했다. 아웃복싱의 메이웨더는 빠른 발로 상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카운터펀치를 던지며 포인트를 따냈다. 베르토는 몇 차례 메이웨더를 코너에 몰았으나, 상대의 특기인 솔더 볼(아깨로 상대의 펀치를 흘려보내는 기술)에 걸려타를 때리지 못했다. 메이웨더도 KO를 노리기보다는 승리에 목표를 두고 반격 대신 코너를 쉽



무패의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13일(한국시간)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WBC-WBA 웰터급 통합타이틀매치에서 안드레 베르토에 심판전원일치 3-0 판정승을 거둔 뒤 주먹을 쥔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타이틀매치를 은퇴경기로 선언한 메이웨더는 49전승의 대기록을 남기고 링을 떠나게 됐다. 라스베이거스(미 네바다주) | AP뉴시스

게 빠져나가는 경기로 일관했다. 6라운드에 10초를 남기고 화려한 스텝을 보여주며 무패 기록을 지속했지만 감동은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메이웨더는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화려한 스텝을 보여주며 무패 기록을 지속했지만 감동은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메이웨더는 경기 종료

당첨번호

• 제 667 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15	17	25	37	42	43	13

1등 총 당첨금: 15,601,350,751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액(원)	당첨금 내역
1등 1명	2,228,764,393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40명	65,005,629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1,543명	1,685,17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81,344명	50,000	50,000원
5등 1,368,363명	5,000	5,000원

• 추첨일: 2015. 9. 12
 •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lotto.co.kr

로또 구입 유의사항

- 로또구매는 일회성의 오락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쁨이며, 자선 투쟁금에 도박성격을 띠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복권은 1인당 1회 100원만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김중건 기자 marco@donga.com